



하브루타 꿈꿈 강좌

하브루타 수업 모형 - 논쟁 중심 수업 모형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토의(討議, Discussion)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 각각 자기의 입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토론(討論, Debate)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을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말싸움', '말다툼', '설전' 등을 의미하는 언쟁(言爭)과는 다르다.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서 토론 중심의 하브루타는 토론할 주제, 즉 이슈를 정한 다음에 그 논제를 중심으로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의논을 하여 논제에 대해 짝끼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자 정하게 한다.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미리 집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조사하거나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물어 각각의 입장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조사해 오는 것이 좋다. 각각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짝과 일대일 토론을 한 다음에, 둘이서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입장을 정하고 모둠끼리 토론을 한 후, 그 모둠의 입장을 정해 그 근거들을 정리한다. 논제에 대한 입장과 근거들을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정리 발표하고 교사가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토론(논쟁)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



- ① 논제 정하기
- ② 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 정하기
- ③ 각각의 입장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기
- ④ 각각의 입장에 따라 둘씩 짝지어 토론하기
- ⑤ 짝과의 토론을 통해 하나의 입장 정하기
- ⑥ 각각의 입장에서 모둠별로 토론하기
- ⑦ 모둠별로 하나의 입장 정하기
- ⑧ 그 입장의 근거 정리하기
- ⑨ 각 모둠의 입장과 근거 발표하기
- ⑩ 교사와의 쉬우르



▲ 토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다.

토론은 유아기부터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아기 토론의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유아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아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토론 예시



1. 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인지 유아들에게 자세히 탐색하게 한다.
2. 개미의 입장과 애벌레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게 한다.
3. 상황과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 상황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개미들이 애벌레를 잡아가려는 것을 발견했다. 개미들은 애벌레를 끌고 가려고 모여들고, 애벌레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 토론 주제

개미를 쫓고 애벌레를 살려 주어야 한다.
(※ 토론 주제는 찬성 입장에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정한다.)

4. 짝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눈다.
5.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발표하며 토론하게 한다.

	주장	애벌레를 살려 주어야 한다.
찬성 예시		그 이유는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벌레가 곤충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 불쌍하기 때문이다. - 죽은 벌레도 있으므로 꼭 살아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 예시	주장	애벌레를 살려 주지 않아도 된다.
	근거	<p>그 이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미는 원래 애벌레 등을 먹잇감으로 잡아먹고 사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 개미도 알을 키우려면 애벌레 같은 영양분이 많은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한다.
※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발표해 보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7. 교사가 예시 결론을 제시하고 마무리하여 토론 주제를 정리해 준다.

● 예시

개미가 애벌레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국내 하브루타의 최고 권위자인 전성수 교수와 손잡고 우리나라 하브루타 발전을 위해 브레멘*에서 설립한 연구 기관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이후 전성수 교수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 및 원장 마인드 교육 진행, 국비 지원 강좌 개설 등 꾸준히 연구와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